스코틀랜드 개혁주의 교회의 게일어(Gaelic)예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aelic-Service Reformed Churches in Scotland

차 재 국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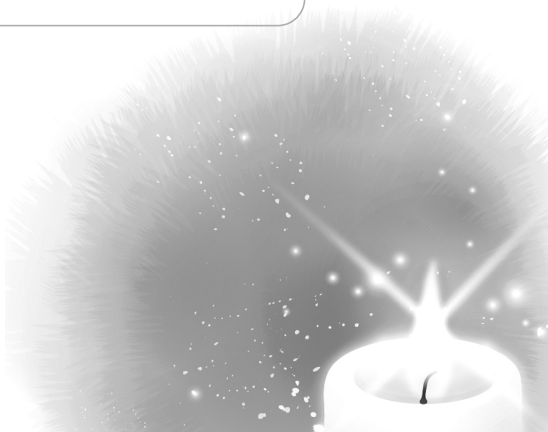
I. 서론 | 349

II. 게일어의 역사와 특징 | 356

III. 스코틀랜드교회들 | 364

IV. 게일어 예배 | 370

V. 결론 | 380



요약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교회의 게일어(Gaelic)예배에 관한 연구

스코틀랜드는 유럽의 그레이트브리튼 섬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로 영어를 제1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영어를 위시하여 게일어, 스코트어 등 세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3중 언어 국가로서 언어와 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다. 게일어는 기원전 500년부터 원주민인 켈트족들이 사용하던 언어이며, 스코트어는 두 번째, 영어는 마지막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언어이다. 그래서 게일어는 수세기 동안 스코틀랜드인의 정신과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학교 그리고 켈트족 조상들이 살았던 서부도서지역과 하일랜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게일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게일어를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는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스코틀랜드 국교회와 자유교회(국교회에서 분리한 보수 교단)에 속한 52개 교회가 게일어로 예배 또는 기도회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일어 예배와 기도회를 갖는 교회들은 주로 개혁주의 신학과 보수적인 교리를 추구하는 교회들로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회중들은 그들의 삶속에서 매우 엄격한 기독교 교리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게일어 사용 교회들은 존 낙스가 설립한 개혁주의 신앙을 준수하는 교회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장로교의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앙을 견지해 갈 것이다.

요약

A Study on Gaelic-Service Reformed Churches in Scotland

주요어

스코틀랜드 국교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게일어, 스코트어, 영어

Abstract

A Study on Gaelic-Service Reformed Churches in Scotland

Prof. Dr. Cha, Jae-Guk

Scotland is a country located on the island of Great Britain of North-Western Europe where English is spoken as Lingua Franca, the first official language. However, since there are currently three languages spoken, English, Scots and Gaelic, Scotland is called a trilingual country which gives a sort of confusion to the identity of Scottish language and its culture. Gaelic was a first arrived language in Scotland in 500 BC by the native tribe, Celtic. Scots is the second and then English the last arrived ones. Gaelic is the language deeply rooted in Scottish spirit and culture for centuries, so there have been some endeavors to restore the Gaelic language at the level of government and schools, and people especially in the western isles and highland where Celtic ancestors used to liv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status quo of Gaelic-speaking congregations in Scottish churches. Through this study, 52 local churches belonging to Church of Scotland (state church) and Free Church of Scotland (disrupted from Church of Scotland) were investigated to offer Gaelic services and/or prayer meetings. These churches

that offer Gaelic services/prayer meetings pursue the Reformed theology and conservative doctrine, and so their congregation try to live according to very strict Christian doctrines in their daily lives. Gaelic-speaking churches in Scotland which continue to observe the Reformed belief established by John Knox will adhere to pure faith without being spotted by secularism as authentic heirs to Scottish Reformed Presbyterian churches.

Keywords | Church of Scotland, Free Church of Scotland, Gaelic, Scot, English

I. 서 론

북서유럽의 그레이트브리튼 섬 북쪽에 위치한 스코틀랜드(영어: Scotland, 스코틀랜드 게일어: Alba)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북 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함께 연합왕국(United Kingdom) 또는 대영제국(Great Britain)을 형성하여 영어를 공용어(Lingua Franca)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임스 6세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합병 한 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코틀랜드에는 제1언어인 영어 외에도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스코트어(Scots), 게일어(Gaelic) 등 3개의 언어가 사용되는 삼중언어(trilingual) 국가로서 국민들의 언어적 정체성 확립이 대체로 약한 편이다.

영어는 현재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스코틀랜드의 언어 발달사 가운데 가장 늦게 사용되기 시작한 언어이기도 하다. 초기 거주자였던 픽트족(Picts)[1]들은 고대 골어(Gaulish)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켈트어(P-Celtic)를 사용하였다. 현재의 지명가운데도 *Pit, Aber, Kin*[2] 등과 같은 피-켈트어로 된 지명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초기 부족시대에 스코틀랜드 남부 지방에서 사용 되었던 언어는 현대 웨일즈어의 조어(祖語)인 브리턴족들(Britons)이 사용했던 브리손어(Brythonic)가 있다. 그 후 9세

1) A.D. 80년경 스코틀랜드를 찾아왔던 로마인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있던 당시의 원주민들에게 붙여준 이름으로, 'painted(그림이 그려진 자)'의 뜻을 지닌 라틴어 '*pictūra*'에서 유래함(Levy & Ong, 2011).

2) 현존하는 게일어 지명의 예는 다음과 같다. Pit: Pittenween, Pitlessie, Pitfirrane, Pitencrieff, Pitreavie, Pitcorthie, Pitscottie, Pitcoudie, Pitlochry, Pitsligo. Aber: Aberdeen, Abernethy, Aberfeldy. Aber가 Inver로 변형되어져 생긴 지명: Inverness, Inverkeithing, Inverurie. Kin(the head or top of something): Kinross, Kinlochewe.

기경에 스코틀랜드의 오크니(Orkney)와 세틀랜드(Shetland)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던 바이킹 족들이 이주하여 정착하면서 들여온 또 하나의 언어인 옛 스칸디나비아 어(the Norse language 또는 Norn)가 있다. 이 스칸디나비아 어는 18세기 무렵까지 세틀랜드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흔적으로 아직 남아 있는 단어 가운데는 '농장(farmstead)'의 의미를 지닌 *bister*와 '기둥이나 교각'의 의미를 가진 *wick*등이 이 때 바이킹 언어에서 영어로 차용된 것들이다(Tabraham, 2004).

이처럼 스코틀랜드인들은 국가가 형성된 이래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시대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바, 게일어, 스코트어, 영어 등은 주어진 역사의 일정한 기간 동안 국어 내지는 공용어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한 언어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소수 언어들도 여전히 명맥을 유지해오는 특징을 지닌 나라이다(Murdoch, 1996)[3].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게일어는 12세기에 절정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의 거의 모든 지역과 심지어 잉글랜드와의 국경 남부지방(잉글랜드의 최 북부 지방)에 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약 13세기에 스코트어의 등장으로 게일어의 역사는 점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하여 게일어를 사용하였던 마지막 왕은 1513년에 서거한 제임스 4세였다[4](MacLean, 1998).

1606년에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위를 계승하였으며, 1707년에 맺은 합병 조약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단일 국회를 구성하여 양국이 연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대 변혁을 겪으면서 스코틀랜드의 게일어는 더

3) 차재국(2012)에서 재인용.

4) 'The King (James IV) even speaks the (Gaelic) language of the savages who lived in some parts of Scotland and in the islands.' (제임스 4세는 스코틀랜드의 일부지역과 도서지역에서 살았던 야만인들의 언어인 게일어까지도 구사한다.)(MacLean, 1998: p. 63.)

욱 거센 압력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18세기가 되었을 무렵 스코틀랜드 인구의 반 정도가 게일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후 수 십 년 만에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유는 1872년에 제정된 교육법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이 의무화 되고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동시에 하일랜드 호족 척결(the Highland Clearances)[5]의 결과로 인구 변화가 일어나면서 게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하일랜드를 떠나감으로 인하여 1891년과 1991년 사이에 게일어 사용자 수가 250, 000에서 66, 000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게일어는 지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현재 게일어 사용자 수는 다시 증가하여 약 250, 000명으로 추산 됨).

게일어가 쇠락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은, 수세기 동안 공용어의 위치를 놓고 스코트어와 주도권 다툼을 해온 것을 들 수 있겠다. 스코트어는 게르만어군의 하나로 약 6세기경에 오늘날 잉글랜드의 북동쪽과 스코틀랜드의 남동쪽(저지대), 오크니, 세틀랜드, 울스터 일부지역 등지에 거주하던 앵글로 색슨족들이 사용하던 언어이다(Unger, 2008)[6] (그림 1 참조). 스코트어가 절정에 달한 때는 1460-1560년대로 게일어를 사용하던 스코틀랜드의 지도층들이 스코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스코트어는 모든 행정관청에서 사용됨으로서 국가의 공용어 내지는 표준어가 되었다(Millar, 2006).

---

5) The Highland Clearances: 하일랜드의 벌족제도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의 인구가 증가된 이유는 벌족들이 서로간의 반목과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많은 수의 사병을 양성하고 그들에게 토지를 보상으로 주어 경작하게 하였다. 하지만 1746년 Jacobite의 봉기로 벌족제도가 폐지되면서 하일랜드 고지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대로 이주한 사건으로, 특히 18-19세기에 셔들랜드 백작부인과 같은 봉건 영주들이 일으킨 농업혁명의 결과로 하일랜드 고지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퇴거당하여 미국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나 타지방으로 이주 하였다(Smout, 1986. p. 62).

6) 차재국(2012)에서 재인용.

[그림 1] 1600년대 스코틀랜드의 언어 분포도[7)]

위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1600년대의 언어 분포는 게일어 사용 지역이 스코틀랜드의 서북부 지역과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사용하던 언어였다. 반면에 스코트어는 동남부 지역의 저지대(lowland)를

7) http://newsnetscotland.com/index.php/affairs-scotland/1555-a-history-of-scottish-languages-part-8 에서 인용 (차재국, 2012에서 재인용).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며, 영어는 남부지역에서 사용되었다. 이 시대를 중심으로 게일어가 남부 잉글랜드 인들이 사용하던 영어에 유입되어 영어 어휘의 어원이 된 경우가 빈번했음을 아래에 나열한 몇 개의 게일어 단어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Buchanan, 1999)[8].

bard(vagabond minstrel: 음영시인, 방랑시인, 서정시인): 15세기에 최초로 영어에 모습을 나타낸 게일어 어휘. 17세기 영국의 문학용어로 사용되었으며 헬라어 bardos와 고대라틴어 bardus의 영향을 받아 게일어에서 bard로 쓰이게 됨.

ben(mountain: 봉우리, 산꼭대기, 산정): beinn [peiɲ]에서 유래한 게일어.

bodach(old man: 노인.

bog(swamp: 습지, 수렁): '부드러운'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 14세기경에 고대 아일랜드어 bocc에서 유래 함.

bothan(hut: 오두막집): 오두막집 또는 흔히 불법 지하 술집을 지칭하기도 함. (cf **bothy/bothie**: 노동자용의 오두막 합숙소).

caber toss: 고대 경기의 하나로 통나무 던지기 놀이.

cailleach(hag: 마녀, 노파): 특별한 고대 여신의 의미에서 유래 함.

cairn(원추형 이정표): càrn에서 유래된 단어로 특이한 형태의 바위산을 지칭할 때 사용되기도 함.

caman(shinty: 반짝이는, 번쩍거리는): shinty의 대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ceilidh(친교모임): 격식을 차린 사교모임의 일종으로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춤을 곁들인 모임을 지칭.

clan(씨족):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벌족(閥族)들을 지칭한데서 유래 함.

claymore(great sword: 대검): 전쟁터에서 사용 하던 크고 넓은 칼을 지칭.

---

8) Buchanan (1999). Gaelic-English English-Gaelic Dictionary.

coire(kettle: 주전자): corrie와 동일한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 문자적으로는 "kettle"의 의미를 지님.

craig(cliff: 절벽): creag에서 유래 함.

galore(enough: 충분한): gu leor「명사 뒤에 쓰여」풍부[푸짐]한: beef and ale ~ 성찬, **glen**(valley: 골짜기) gleann에서 유래 함.

kyle/kyles(strait: 좁은 수로): 게일어 caol & caolais에서 유래 함.

loch(lake: 호수): 게일어 loch 원어 그대로 영어에서 사용.

Mackintosh(son of the chieftain, Tòisich : 토이시흐 호족의 아들): Mac an Tòisich에서 유래한 스코틀랜드의 호족 가문의 이름. 맥킨토시 컴푸터를 개발한 Charles Macintosh의 이름을 따서 지은 회사 이름.

mod(assembly, court: 모임, 회의): 게일어로 festival의 뜻을 지닌 mòd에서 유래 함.

pet(tame animal): 게일어 peata에서 유래 함.

pillion(pack-saddle: 안장, 방석): 게일어 pillean에서 유래 함.

plaid(blanket: 담요): 저지대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던 게일어에서 유래 함.

slogan(battle-cry: 구호): sluagh-ghairm(battle-cry)에서 유래 함.

strontium(the point at the fairy hill:): Sròn an t-Sìthein에서 유래 함. name of a mountain, near which the element was discovered.

trousers(바지): 어원이 "trews"인 triubhas에서 유래 함.

whisky(whisky): whiskybae의 축약형으로 생명수(또는 생수)의 의미를 지닌 uisge-beatha에서 유래 함.

이와 같이 게일어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스코트어[9]와 영어는 스코틀랜드

9) 스코트어를 중세시대 영어의 형식(form)을 모방한 언어로 간주 함(Levy & Ong, 2011).

의 남부 지역(주로 저지대)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소수 사용자를 가진 언어에 불과하였다[10]. 그러다가 1700년대에 이르러 스코트어가 게일어를 제치고 스코틀랜드의 중심언어로 자리매김을 하며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언어 세계를 지배하였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로버트 번스(Robert Burns: 1759-96)의 시들은 대부분 옛 민속노래들을 모아 자신 만의 독창적인 스코트어 문체로 개작하여 지금까지 애송되고 있다[11]. 스코트어로 시작을 한 현대시인은 휴 맥디아르미드(Hugh MacDiarmid: 1892-1978) 이다.

하지만, 스코트어도 게일어와 같이 인접 지역인 잉글랜드에서 사용되던 표준영어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영어에 굴복하고 만다. 그리하여 18세기 말경에 영어가 공공 기관과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스코트어는 영어의 방언 내지는 조야한 영어로, 하나의 독립된 언어라기보다는 기존 언어에서 개조, 개발된 약소 언어정도로 취급을 당하였다(Kloss, 1967; Glen, 2010). McLeod와 같은 언어학자는 주장하기를 '엄격한 면에서 볼 때 현재 사용되는 스코트어는 중세시대 영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으로 어휘면에 있어서 영어와 큰 차별성을 갖지 못 한다'고 말할 정도이다(McLeod, 1998:30)[12]. 이는 18세기 연합왕국의 시대에 영어가 게일어와 스코트어를 제치고 스코틀랜드의 공공기관에서 주된 언어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게일어-스코트어-영어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게일어에 대한 향수가 스코틀랜드인들의 정신세계 속에 잔재해 있고, 정치적으로는

---

10) 그 당시 영어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남부 지방 일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였지만, 잉글랜드에서는 국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11) 번즈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auld lang syne'(흘러간 날, 즐거웠던 옛날(old long since, the good old days))은 전 세계인들이 애송하는 노래이다. 스코트어와 중세 시대 영어와의 유사성을 가늠 할 수 있는 시(詩)이기도 하다.

12) Glen(2010)에서 재인용.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게일어 사용을 고수하며 그들의 예배에 게일어 만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교회들의 특징과 신앙 노선을 살펴봄과 동시에 회중들의 신앙관과 삶을 탐구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게일어의 역사와 특징, 게일어의 언어 정책 등을 먼저 살펴보고, 게일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교회들의 현황(지리적 위치, 신앙노선 등)을 논하게 될 것이다.

Ⅱ. 게일어의 역사와 특징

1. 게일어의 역사

게일어는 스코틀랜드를 형성한 최초의 민족인 게일족(또는 켈트족: 골족의 후예)의 전통 언어로서 스코틀랜드인 대다수가 사용하던 역사적인 고유어이다. 게일어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아가일(Argyll)[13]에 살던 켈트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Levy & Ong, 2011). 그러나 약 4세기경에 달 리아타(Dal Riata) 왕국의 합병으로 북아일랜드의 고대 얼스터 지방과 스코틀랜드의 서쪽 지역이 교류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게일어 사용 지역이 확장되었다. 지명을 통하여 보건대 게일어가 5-6세기경까지 린스 오브 갈로웨이(Rhinns of Galloway)[14]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일어가 국가 전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아이오나(Iona)섬[15]에서 성 콜럼

13) 스코틀랜드 서부의 옛 주(州(1975년 폐지)로 현재의 Strathclyde 주(州)의 일부.
14) The Rhins of Galloway (린스 오브 갈로웨이): the Rhins of Wigtownshire로도 불리어 지며 스코틀랜드 덤프리즈와 갈로웨이에 위치한 망치 모양으로 생긴 반도.

바(Saint Columba)와 같은 수도사들이 픽트족 족장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게일어는 스코틀랜드의 공용어가 되어 타 언어 사용자들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게일어를 사용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 게일어는 고도로 발달된 법체계와 문학작품과 품격 있는 문화 등과도 연계되어있었다. 이로 인하여 게일어는 10세기가 되었을 무렵에 스코틀랜드의 국어가 되었다. 스코틀랜드의 지명 가운데 세틀랜드와 오크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게일어로 된 지명이 가장 많음도 이런 이유에서다. 심지어 헤브리디스제도와 서쪽 해인지역에 정착한 스칸디나비아인들도 게일어를 사용할 정도였다.

597년에 성 콜럼바의 죽음을 애도하여 쓴 애가(哀歌)가 게일어로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로서, 게일어 문학이 서 유럽의 다른 언어로 된 문학작품 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게일민족사회에서 시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이유는 시인들의 후원자들이 부유한 귀족들로서 자신들의 공적을 칭송하고 원수들의 허물을 풍자하는 노래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시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7년 동안 문법과 언어학과 역사 등을 공부하여야 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에는 중세시대로부터 내려오는 매우 세련된 게일어 시들을 소장하고 있는 바, 이 시들은 맥도날드가(家), 캠벨가, 맥리언가와 같은 명문가와 하일랜드의 귀족들을 칭송하거나 풍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7세기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송가나 시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애송되는 이유는 이 작품 속에 당시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과 일어난 사건들을 수려한 감정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13세기 이후, 저지대에서는 영국인들과 프랑스인들의 영향이 더욱 확산되고, 재산과 토지가 조직적으로 (중세 영어의 형태를 띤) 언어[16]를 사용하

15) 스코틀랜드 서해안 앞바다의 Hebrides 제도 중의 섬; 켈트인의 초기 그리스도교의 중심지.

16) 스코트어를 지칭.

는 사람들의 손으로 양도되기 시작하면서, 게일어가 노르만디인들의 언어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간에 무역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영어 사용자와 플라망어 사용자가 스코틀랜드의 소도시에 정착 하게 됨으로서 영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대로, 연합왕국의 결성과 18세기-19세기에 발생한 Jacobite[17]의 소요와 고지대 호족 척결과 같은 사건들로 말미암아 게일어가 급속히 퇴락의 길을 걷게 된다. 즉, 1872년에 제정된 교육법에 의하여 모든 어린이들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게 했으며, 또한 학교 현장의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게일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는 체벌을 가할 정도였다. 특히 잉글랜드에 의한 켈트족 문화에 대한 탄압으로 킬트, 백파이프 등 켈트족 전통물과 함께 게일어 사용도 금지되어 점차 쇠퇴일로에 처하게 되어, 현재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를 중심으로 서해안의 도서지역에서 일부 사용될 뿐이다. 즉, 오늘날 게일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인구는 약 250, 000명이고, 그 가운데 북서부 고지대와 헤브리디스제도[18]에 거주하는 86, 000명 정도가 게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지난 10년간 학교에서 다시 게일어 수업을 제공하면서 증가 일로에 있다. 지금은 이중 언어(영어, 게일어)로 운영되는 학교도 생겨났고, 스카이섬(the Isle of Skye)에는 게일어 대학인 Sabhal Mor Ostaig[19]도 설립되었다. 이

17) Jacobite: 퇴위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7세 이며 동시에 잉글랜드의 제임스 2세의 추종자들의 집단. Jacobite는 라틴어로 James를 지칭하는 Jacobus, Jacobitism에서 유래함.

18) 스코틀랜드 북서쪽의 열도(列島).

19) Sabhal Mòr Ostaig 대학은 스코틀랜드에서 게일어 사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에 게일어를 매개로 하여 가르치는 대학으로 스코틀랜드 북서 지역인 스카이 섬의 슬리트 반도의 아르마데일에서 북쪽으로 3km 지점에 두 개의 캠퍼스(Arainn Ostaig, Arainn Chaluim Chille)가 있다. 하일랜드 & 도서(島嶼)대학교(University of Highlands and Islands)의 한 분교로서 1973년에 지역 재벌인 이언 노블(Iain Noble)에 의하여 Ostaig 농장 대지 위에 건립되었다. Sabhal Mòr Ostaig의 본래의 뜻은 'the great barn of Ostaig'(오스태이그의 대 곳간)로서, 최초의 건물이 1820년 알랜 맥도날드 소령의 소유였던 Ostaig 농장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학부과정(BA: Hons)에는 '게일어와 통신(Gaelic and

외에도 게일어 TV, 라디오방송 프로그램도 괄목한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게일어로 된 출판물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Wilson, 2012).

2. 게일어의 특징과 부활

게일어는 2005년에 스코틀랜드의 공용어로 지정되면서 게일어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게일어는 매우 풍부한 구어 및 문어체의 전통을 지니고 있어 수 세기 동안 하일랜드 호족들이 후원하던 음유시인들의 언어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게일어의 생존은 스코틀랜드 정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다. 이는 게일어 속에는 봉건시대 이전의 법과 관습에 관한 정보와 문서가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저지대와 영어를 사용하는 지방 중심의 통치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여왔으며 이러한 저항은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동맹관계를 체결한 후에도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특별히 게일어가 억압을 받은 때는 고지대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이 말살되던 해인 1746년 쿨로덴 전투 후에 일어난 고지대 호족 척결 기간 동안 이었다. 그러나 봉건제도 이전의 관습이 아직 남아 있어서 19세기 말엽에 일어난 고지대 토지 연맹(Highland Land League)[20]을 결성하여 정부에 저항하며

Communication), 게일어와 문화(Gaelic and Culture), 게일어와 개발(Gaelic and Development), 게일어와 전통 음악(Gaelic and Traditional Music), 게일어와 미디어학(Gaelic and Media Studies), 게일어 교육(Gaelic with Education); 대학원 과정(MSc)에는 물질문화와 역사(Material Culture and Gaidhealtachd History);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Homepage: www.smo.uhi.ac.uk/en/cursaichean/cursaichean-air-astar/. 2013년 7월 25일 검색함.)

20) 최초의 고지대 토지 연대는 1880년대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나타났으며, 고지대 토지 법 개혁 연합과 <소작농 당(Crofters' Party)>으로도 알려졌다(Smout, 1986. p. 72.).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후에 이 운동은 영국 의회에도 진출하여 의석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토지 연맹은 국회에서 1886년 소작농법을 제정함으로서 소멸되었으나, 자유당에서 토지 연맹의 목적을 지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게일어가 고지대 게일어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는 기능을 상실한 저지대 게일어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저지대 게일어는 저지대 스코트어가 도입되기 이전에 스코틀랜드의 남부지역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지형에 따라서 남쪽과 북쪽의 언어적 경계선을 그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명을 보고 아가일(Argyll)과 갈로웨이(Galloway) 간의 심각한 언어적 차이를 알 수 없다. 이는 스코틀랜드 게일어와 아일랜드 게일어를 연결해주는 모일 해협에 위치한 이 두 곳의 방언이 지금은 멸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지대와 도서지방 외에 타 지역에서는 거의 소멸되었던 게일어가 지난 20년 간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언어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팝(pop)과 락(rock) 스타들이 게일어로 노래를 부르고, 모든 정치적 정당들이 게일어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게일어를 가르치고, TV와 라디오에서도 게일어로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타탄(tartan), 킬트(kilt), 위스키, 백파이프(bagpipe)와 함께 게일어는 낭만적인 스코틀랜드 신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스코틀랜드인들은 게일어를 자신들의 민족어로 믿고 있지만,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습득하기에는 매우 난해한 언어로도 인식하고 있다.

게일어의 주요 어휘들을 영어의 어휘와 대조해 보면 아래와 같다 (Buchanan, 1999).

(*표는 현재 영어 어휘로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표 1] 게일어/영어 주요 단어 대조표

게일어 어휘	영어 어휘	뜻
aba	abbot	수도원장
abaid	abbey	수도원
adhradh	worship	예배
aingeal	angel	천사
*ben	mountain	산, 산정
biobal	Bible	성경
*clan	children or family	가문
cleir	clergy	성직자
*corrie	kettle	주전자
*craig	cliff	절벽
Criosd	Christ	그리스도
eaglais	church	교회
*glen	valley	골짜기
guidh	pray	기도하다
guidhe	prayer	기도
*loch	lake	호수
*mac	the son of	~의 아들
moladh	praise	찬양하다
Nollaig	Christmas	크리스마스
searmonaich	preach	설교하다
*skean	knife	칼
*slogan	battle-cry	구호
*twig	to understand, catch on	이해하다
*whisky	short form of whiskybae, water of life	위스키

위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일어와 영어 간에 철자가 유사한 어휘들(ex. aba-abbot, abbaid-abbey, aingeal-angel, biobal-Bible, craig-cliff, Criosd-Christ, loch-lake)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게일어와 영어의 어휘 철자가 유사한 이유는 이 두 언어가 공히 인도유럽어족의 서 게르만 어파에서 유래하여 인접 지역에서 발전해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기원전부터 살던 원주민인 켈트족들이 사용하던 언어(게일어)가 후에 침입한 민족들의 언어(영어)에 강한 영향을 끼친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영어에 끼친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게일어는 현재 실제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데는 많은 제약에 봉착해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대로,

게일어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게일어가 사용되는 고지대와 도서 지방 사람들이 저지대나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일어 중심지역에 사는 젊은이들은 양질의 교육이나 고 소득의 직업을 찾아 그곳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게일어 증진 단체에서는 게일어를 구사하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3. 게일어 정책

언어정책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술 한 바대로 많은 불리한 여건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일어는 20세기 후반부터 교육과 매체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입법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게일어와 관련된 4개의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Glen, 2010):

(1) 1980 교육법: 게일어 사용지역에서는 게일어를 가르칠 수 있다.
(2) 1986 게일어 교육 지원법: 게일어 교육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정부가 지원 한다.
(3) 2000 스코틀랜드 학교표준법: 지방정부에서 게일어 증진을 위하여 기울인 모든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해마다 제출한다.
(4) 1990 방송법: 게일어 TV 방송국을 개설하여 게일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재정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와 같은 4개의 법안 외에도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게일어 협회를 설립하여 게일어와 게일어 문화를 증진시키고 언어 정책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어왔다. 이를 테면, 게일어로 교육하는 초등학교가 1993/94년부터 1997/98년 까지 3년 만에 15%가 상승하였으며, 게일어로 방송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급속히 증가되었다. 1985년에 2개의 게일어 초등학교가 존재

하였으나 2010년 현재 62개 학교에서 2, 000명의 학생들에게 게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일련의 정책 제시는 주요 입법안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게일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1993 웨일즈어 법 제정의 영향을 입어 1990년대에 CNAG(Comataidh na Gàidhlig: 게일어 위원회)가 게일어를 주요 법안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2005년도에 게일어 법(The Gaelic Language Act)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 법안에 따라서 '게일어 장려회(Bòrd na Gàidhlig)'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3대 과제를 부여하였다: (1) 게일어를 사용하고 이해 할 수 있는 인구수를 증가 시키고, (2) 게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3) 게일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게일어 장려회는 또한 게일어가 영어와 동등하게 추앙받는 스코틀랜드의 공용어 위치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두고 '국립 게일어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 계획은 법안 심리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바, 많은 위원들이 게일어를 공용어로 선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집행부에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여, 결국 게일어를 스코틀랜드의 공용어로 지칭하되 공용어로서의 법적 강제성을 가진 신분(status)은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Dunbar, 2005)[21].

게일어를 보호하기 위한 스코틀랜드 국내에서의 입법 활동 외에도 '국제 시민 정치 권리약조(ICCPR)'와 '지역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과 같은 국제적인 기구를 통하여 게일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게일어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문화 전수를 목적으로 이미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고등 교육기관인 Sabhal Mòr Ostaig 대학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

21) Glen(2010)에서 재인용. 2005년부터 게일어가 스코틀랜드의 공용어로 지정되었다.

Ⅲ. 스코틀랜드교회들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의 시작은 기원전 400년경에 성 니니안(St. Ninian)이 갈라웨이의 휘돈지방에 설립한 칸디다 카사(Candida Casa)[22]가 최초의 교회로 알려져 있다. 메리 스튜어트 여왕 당시 활동한 존 낙스(John Knox)의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장로교회가 분리되어 탄생했으며, 현재도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의 공식적인 국교(state religion)이다. 칼빈주의 노선을 표방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코틀랜드 국교인 스코틀랜드교회(Church of Scotland)이고,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이다. 스코틀랜드 국교회와 자유교회 외에도 연합장로교회(United Prresbyterian Church), 자유교회(계승)(Free Church of Scotland, Continuing), 오순절교회, 감독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들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교회와 연합장로교회, 자유교회, 자유교회(계승)에 대하여 약술하고 국교회와 자유교회에 속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게일어 예배 현황을 상술하고자 한다.

1. 스코틀랜드 국교회(the Church of Scotland)

스코틀랜드 교회(이하 '국교회')는 1, 500년의 역사를 지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회이며,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교회조직으로 1, 179개 지역 교회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약 400, 000명의 교인들과 800명의 목회자들과 1, 500명의 전문 행정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22) 'Candida Casa'는 라틴어 casa(오두막)와 candidus/candida(반짝이는 백색: 건축물에 사용된 백색 돌, 혹은 건물에 칠한 하얀 회반죽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 됨).

국교회는 주로 1560년과 1690년 사이에 제정 된 회의기관을 바탕으로 조직되어 있다. 지역 교회에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당회(kirk session)를 두어 지역의 교인들과 교구를 감독하게 한다. 당회의 상위 기관으로 노회(presbytery)를 두어 지역교회를 관할하게 한다. 노회는 각 교회 목사들과 그리고 동수의 장로들과 부속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2013년 현재 46개의 노회가 조직되어 있다. 전국 단위로 최고의 의결 기관인 총회를 두고 있으며, 노회에서 총대로 선출된 약 400명의 목사와 400명의 장로와 부속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여왕이 스코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없다. 다만 여왕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23]라고 교단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교회는 영국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성직임명이나 교회 설립에 있어서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의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회복을 공인한 해인 1690년 이후로 교회의 신분은 국교회(the national Church)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1707년의 잉글랜드와의 합병법의 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 조직, 제자훈련, 예배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1921년에 의회가 승인한 이른바 '조항선언문(the Articles Declaratory)[24]'에 명시된 교단 헌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

23) The Queen is not the supreme governor of the Church of Scotland, as she is in the Church of England. The sovereign has the right to attend the General Assembly, but not to take part in its deliberations. (여왕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최고 통치자가 아니다. 이유는 여왕은 잉글랜드교회에 소속이기 때문이다. 여왕은 총회에 참석할 권한은 있으나, 토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스코틀랜드 교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Homepage of the Church of Scotland, http://www.churchofscotland.org.uk/home 2013년 7월31일 검색함.)

24) Church of Scotland Act 1921, CHAPTER 29 11 and 12 Geo 5: An Act to declare the lawfulness of certain Articles declaratory of the Constitution of the Church of Scotland in matters spiritual prepared with the authority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28th July 1921]. (스코틀랜드교회 1921년도 조례, 29조 11-12항 5절: 본 조례는 영적인 제반 문제와 관련하여

1750년대부터 1850년대까지 스코틀랜드 교회는 분리의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인 바, 성직자의 임명권을 국가가 장악하고 교구 교회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목회자를 임명하는 문제로 이에 굴복하는 교회들이 1843년 총회에서 탈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를 이른바 '분열(the Disruption)'이라고 칭하며 국교회를 이탈하여 스코틀랜드 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라는 새로운 교단을 세우게 되었다(III-3 참조).

그러나 국교회는 오늘날 세속적 시류에 편승하여 여성의 성직 임명을 허락하며, 동성애자들을 위하여 동성애 목회자를 임명하고,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 성경의 가르침에서 일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5]. 현실에 안주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 교세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United Presbyterian Church)

1847년에 스코틀랜드 교회를 떠난 교회들이 발전시킨 연합분리교회(United Secession Church)와 구제교회(Relief Church)가 통합하여 설립한 교단으로, 1900년에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와 합병하여 스코틀랜드 연합 자유교회(United Free Church of Scotland)를 형성하였다가 다시 1929년에 스코틀랜드 국교회와 연합하였다. 연합장로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는 각각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가장 정통적인 전통을 대표한다고 주장했다. 이 3개 교단은 교리·정치·예배에서 별 차이가 없었지만, 연

스코틀랜드 교회의 헌법 모든 조항이 합법적임을 총회의 권위로서 선언하는 바이다. 1921년 7월 28일).

25) The Huffington Post, UK. 2013년 8월 7일 자 기사. 'Church of Scotland votes for openly gay ministers: The Church of Scotland has voted in favor of allowing openly gay men and women to become ministers - whilst maintaining a traditional standpoint.'

합장로교회는 해외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점, 교회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의 모든 지원을 항상 거절했다는 점에서 다른 교단과 구별되었다. 국교회와 합병하기 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가운데 세 번째 규모의 교단으로 자유주의 노선에 속했었다(Smout, 1986).

3. 스코틀랜드 자유교회(Free Church of Scotland)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이하 '자유교회')는 1843년 국교회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교인들이 따로 조직한 교회로 그 분열은 18세기 초 국교회에서 두 집단이 발전하면서 서로 간에 형성되어온 긴장의 결과였다. 그 두 집단 가운데 하나는 온건파(the Moderates)로, 이들은 주로 사회활동, 문화, 국교회 내의 지위에 관심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복음주의파(the Evangelicals)로,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철저히 믿는 엄격한 칼빈주의자들로 교회의 국가로 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며 성직자 선정(選定)의 주체가 봉건 지주[26]가 아니라 회중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 두 집단이 갈등을 겪게 된 역사는 다음과 같다. 1712년 영국의회의 승인을 얻은 성직 임명권/목사 추천권(Patronage)에 의하면 부유한 지주들이 지역 교회 성직자를 임명하도록 허용했고 따라서 교회는 온건파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력이 커진 복음주의파는 교회가 국가로부터 더욱 자유로울 것과 개교회가 직접 그들의 목회자를 선출할 권리를 요구했다. 여러 법원과 의회가 지주들의 성직 임명권을 지지하자 복음주의파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국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1843년 5월 18일 국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총대 가운데 5분의 2(목사

26) 그 당시 봉건 지주(landowner)들이 교회의 성직임명권(patronage)을 지니며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총대의 40%)를 차지하였던 복음주의파는 교회회의를 자유롭게 진행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한 뒤 회의장을 다른 장소로 옮겨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제1차 총회를 가졌으며, 토머스 차머스를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 사건은 스코틀랜드 국교회로부터 단순히 이탈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들여져 스코틀랜드 교회 분열로 알려지게 되었다.

자유교회는 국교회로부터 제공받던 세입, 교회당, 교수직, 목사 사택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 새 교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목사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교회·사택·학교·대학 등의 건물을 새로 지었으며 선교 사업을 준비했다. 자유교회는 불과 몇 년 사이에 놀랄 만큼 성장했고,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에서 유력한 세력이 되었다. 그 교회는 변하고 있던 문화에 적응했고, 인구가 많은 곳에 새 교회들을 설립하였으며, 훗날 내분의 원인이 된 새로운 성경해석 방식을 받아들였다. 자유교회는 1900년도에 연합장로교회와 합병하여 연합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했다. 연합자유교회는 1929년 이미 국교회에 성직 임명권 제도가 없어지고, 국교회 제도가 폐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스코틀랜드 교회와 재통합했다. 자유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연합장로교회와의 통합을 반대해 계속 스코틀랜드 자유교회로 남았다. 현재 자유교회는 주로 서부 산악지대와 섬들의 게일어 사용 지역인 헤브리디스 열도, 북 우이스트, 루이스 지방에 밀집되어 있다. 헤브리디스 주민들은 주일이 되면 검은 옷을 입고, 노동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요리도 하지 않는다. 토요일에 늘어둔 빨래 감도 집안에 거두어 들여야 하며, 모든 어선들도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객선도 주일에는 거의 운항이 되지 않는다.

자유교회는 Edinburgh & Perth 노회, Glasgow & Argyll 노회, Inverness, Lochaber & Ross 노회, Northern 노회, Skye & Wester Ross 노회, Western Isles 노회 등 총 6개 노회로 구성 되어져 있다. 스코틀랜드에 100여의 교회[27]와 런던에 2개 교회, 북 아메리카에 5개 교회, 인도와 페루, 남아공화국

에 선교활동에 의해 설립된 여러 자매 교회들을 두고 있다. 그리고 에든버러에 목회자와 기독교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Free Church College)를 운영하고 있다.

4.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계승)(Free Church of Scotland, Continuing)

스코틀랜드 자유교회(계승)는 2000년도에 매클라우드(Donald Macleod) 교수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스코틀랜드 자유교회의 계승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설립한 또 하나의 스코틀랜드자유교회이다. 스코틀랜드 5개 노회와 미국 1개 노회 등 총 6개 노회에 소속된 37개 교회[28]에 출석하는 회중

27) 자유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는 다음과 같다(알파벳 순): Aberdeen-Bon Accord, Achiltibuie-Coigach, Arran, Ayr (Martyrs), Back, Bishopbriggs, Bonar Bridge & Lairg, Cambuslang, Coatbridge, Cross, Dingwall & Strathpeffer, Dornoch, Dumfries, Dunblane Free Church, Dundee-St Peter's, Dunfermline, Dunoon and Strachur, East Kilbride, Edinburgh-Buccleuch & Greyfriars, Edinburgh-Leith, Edinburgh-St Columba's, Elgin & Forres, Falkirk, Ferintosh & Resolis, Fort William, Fortrose, Glasgow-Dowanvale, Glasgow-Glasgow City, Glasgow-International Students Church, Glasgow-Govanhill, Glasgow-Partick, Glen Urquhart and Fort Augustus, Golspie, Greenock, Harris, Helmsdale, Inverness-Free North, Inverness-Greyfriars & Stratherrick, Kilmallie, Kiltarlity, Kiltearn, Kingussie-Badenoch, Kirkcaldy, Knock, Knockbain, Livingston, London City Presbyterian Church, London-Cobham Presbyterian Church, Maryburgh and Killearnan Free Church, Nairn, North Uist, Grimsay & Berneray, Park (Gravir), Perth & Pitlochry, Plockton and Kyle, Point, Poolewe and Aultbea, Portree, Prince Edward Island, Rosskeen, Scalpay, Shawbost, Sleat & Strath, Smithton Culloden, South Uist & Benbecula, St Andrews, Stornoway, Tain, Thurso, Toronto, Ullapool - Lochbroom. (Free Church of Scotland Year Book, 2011).

28) 자유교회(계승)에 소속된 교회는 다음과 같다(알파벳 순): Aberdeen, Arran, Assynt & Eddrachillis, Atlanta Reformation Presbyterian Church, Ayr, Bracadale, Brora, Columbia Grace Reformed Church, Cross, Duirinish, Dumfries, Duthil-Dores, Edinbur로 St Columba's, Galashiels, Glasgow Knightswood, Glasgow Partick, Glasgow Shettletston, Greenville Presbyterian Church, Harris Liverburgh, Inverness Greyfriars Westhill, Kilmorack & Strathglass Beauly, Kilmuir & Stenscholl Staffin, Kiltearn Evanton, Knock & Point, Lochalsh Ardelve, Metropolitan Washington, North Uist & Grimsay, Poolewe & Aultbea, Portree,

수는 약 1, 000명가량의 소규모 교단이며, 인버네스와 잠비아에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국제개혁주의교단협의회(ICRC: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formed Churches and of Affinity)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다.

Ⅳ. 게일어 예배

1. 게일어 예배 교회들

스코틀랜드 국교회(Church of Scotland)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소수의 교회들, 특히 서해안 도서 지역에 위치한 교회의 회중들을 중심으로 게일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로 서해안 도서 지방에 위치한 타 교파의 회중들 가운데에도 게일어 사용자들이 있긴 하지만 극히 소수이다. 국교회 외에도 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 자유교회 (법통)(the Free Church of Scotland (continuing)), 자유 장로교회(the Free Presbyterian Church of Scotland) 그리고 장로교회연합(the United Presbyterian Churches)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양대 교단인 국교회와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게일어를 매개체로 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의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아래에 열거한 스코틀랜드 국교회들은 담임목사의 게일어 구사 능력을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는 교회들이다. 그 가운데 몇 몇 소수의 교회들은 게일어 구사를 필수 사항으로 두고 있기도 하다. 게일어를 구사할 능력을

Rothesay, Scalpay Haris, Shawbost Bragar, Smith Falss, Snizort, St Louis Soverign Grace Presbyterian Church, Stornoway, Strath Broadford, Tarbat Protmahomack, Ullapool. (Free Church of Scotland, Continuing homepage: www.freechurch.org. 2013년 8월2일 검색).

갖춘 목사의 부족으로 게일어 사용을 권고사항 혹은 필수 사항으로 둔 교회들이 최근 수 십 년간 감소 추세에 있다.

게일어를 구사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잉글랜드의 런던에 위치한 Crown Court Church of Scotland[29]와 스코틀랜드의 양대 도시인 에든버러와 글라스고우에서는 극소수의 교회에서 게일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에든버러에 위치한 Greyfriars Tolbooth & Highland Kirk에서는 게일어 예배를 오후 12:30에 게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목사들이 순번을 정해 놓고 차례대로 인도하고 있다. 글라스고우에서는 성 빈센트 가에 위치한 St Columba's Church, Glasgow와 페트릭가에 위치한 Gardner Church of Scotland, Glasgow에서 주 두 차례 게일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래와 같이 국교회의 각 노회별 게일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36개 교회이다.[30]

아가일 노회(Presbytery of Argyll)

(1) Gigha and Cara Church of Scotland
(2) Jura Church of Scotland
(3) Kilchoman linked with Portnahaven Church of Scotland
(4) Kildalton and Oa Church of Scotland
(5) Kilmore Church of Scotland
(6) Tiree Church of Scotland
(7) Tobermory (Isle of Mull) Church of Scotland

에딘버러 노회(Presbytery of Edinburgh)

(8) Greyfriars Tolbooth & Highland Kirk (Gaelic essential)

---

29) 1년 중에서 3월, 5월, 9월, 12월 등 4차례만 주일 오후 예배를 게일어로 드리고 있다.
30) Church of Scotland Yearbook (2005-06 edition), St Andrew Press, Edinburgh.

글라스고우 노회(Presbytery of Glasgow)

(9) St Columba's Church, Glasgow (Gaelic essential)

(10) Gardner Church of Scotland, Glasgow

인버네스 노회(Presbytery of Inverness)

(11) Dalneigh and Bona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노회(Presbytery of Lewis)

(12) Barvas Church of Scotland

(13) Carloway Church of Scotland

(14) Cross Ness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15) Kinloch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16) Knock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17) Lochs-Crossbost Church of Scotland

(18) Lochs-in-Bernera Church of Scotland

(19) Stornoway: High Church of Scotland

(20) Stornoway: St Columba's Church of Scotland

(21) Uig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로흐카론-스카이 노회(Presbytery of Lochcarron-Skye)

(22) Applecross, Lochcarron and Torridon Church of Scotland

(23) Bracadale and Duirinish Church of Scotland

(24) Kilmuir and Stenscholl Church of Scotland

(25) Portree Church of Scotland

(26) Snizort Church of Scotland

(27) Strath and Sleat Church of Scotland

로스 노회(Presbytery of Ross)

(28) Lochbroom and Ullapool Church of Scotland

우이스트 노회(Presbytery of Uist)

(29) Barra Church of Scotland

(30) Benbecula Church of Scotland

(31) Berneray and Lochmaddy (North Uist) Church of Scotland

(32) Carinish (North Uist) Church of Scotland

(33) Kilmuir and Paible (North Uist)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34) Manish-Scarista (Harris) Church of Scotland

(35) South Uist Church of Scotland

(36) Tarbert (Harris) (Gaelic essential) Church of Scotland

2007년에 개최된 국교회 총회에서 선교・제자훈련위원회와 목회위원회로 하여금 국교회 내에서의 게일어 사용의 실태를 조사하여, 교회에서 게일어 사용을 독려하며 개발 할 수 있는 전략을 작성하여 2008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교회의 총회는 이 보고서에 의하여 스코틀랜드의 교회들과 사회 간에 게일어의 위상에 간극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게일어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 수가 줄어들고, 자신 있게 게일어로 설교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부족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게일어를 사용하던 많은 회중들이 전통적인 게일어 예배에서 영어 예배로 이동하여 게일어 예배의 성격을 도외시 하는 반면에 스코틀랜드 사회는 대체로 게일어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스코틀랜드 정부가 주도하는 게일어 국가계획의 준비과정에서도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주도에 대응하는

게일어 국가 계획 수립; 게일어 위원회 설립; Sabhall Mor Ostaig 대학 육성; 게일어가 정규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게일어 사용을 계속하도록 독려 및 개발; 스코틀랜드 교회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에 게일어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일 등이다. 위원회에서는 스코틀랜드 전국에 게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해 있고, 예배 시에 게일어적인 요소[31]를 가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제자훈련 위원회는 국교회의 웹사이트에 게일어 예배 자료를 올릴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제안 사항은, 영어예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게일어로 된 축도, 기도문, 성경 구절 등을 간략하게 수록; 주일 학생들의 게일어 교육을 위하여 성경적인 이야기 자료를 제공; 하일랜드 기독교의 역할을 세계 교회에 널리 홍보하는 것 등이다. 위원회는 또한 교회 예배시에 의무적으로 게일어를 사용하도록 하며, 교단 차원에서 게일어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후원 할 것 등을 제안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게일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국교회 가운데 36개 교회가 있으며, 자유교회에 소속된 교회 가운데 게일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다음과 같이 16개 교회임이 조사되었다.

인버네스, 로하버 & 로스 노회(Presbytery of Inverness, Lochaber & Ross)

(1) Inverness – Free North Free Church of Scotland:

하일랜드의 수도였던 인버네스의 네스 강변에 위치한 교회로 담임목사가 부재중이라 임시 당회장에 의하여 일부 성찬식 예배 만 게일어로 드림.

서부도서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2) Back Free Church of Scotland:

서부 제도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소속으로 스코틀랜드 서부 루이

31) 축도나 기도 등 예배의 순서 가운데 일부를 게일어로 시도하기.

스 섬(Isle of Lewis)에 위치. 담임목사: Rev Calum Iain MacLeod. 주일 세 차례의 예배 가운데 한 차례는 게일어로 드림.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게일어 기도회 가짐.

(3) Barvas Free Church of Scotland:

서부 제도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소속으로 담임목사 공석 중임. 임시 당회장에 의하여 주일 12시 예배는 게일어로, 오후 7시 예배는 영어로 드림.

(4) Callanish Free Church of Scotland:

서부 제도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소속으로 스코틀랜드 서부 루이스 섬(Isle of Lewis)에 위치. 담임목사: Rev Malcolm MacDonald. 세 차례의 주일 예배 가운데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기도회는 게일어로 가짐.

(5) Carloway Free Church of Scotland:

서부 제도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소속으로 스코틀랜드 서부 루이스 섬(Isle of Lewis)에 위치. 담임목사: Rev Kenny Macleod. 주일 두 차례의 예배 모두를 게일어로 드림.

(6) Cross Free Church of Scotland:

서부 제도 노회(Western Isles Presbytery) 소속으로 스코틀랜드 서부 루이스 섬(Isle of Lewis)에 위치. 담임목사: Rev Kenneth M Ferguson. 주일 12시 예배는 게일어로 오후 6시 예배는 영어로 드림. 10:30 영어 예배는 격주로 드림.

(7) Harris Free Church of Scotland:

하리스 제도의 레버버르에 위치. 담임목사: Rev Ruairidh MacLean. 12시에 게일어 예배. 격주로 영어예배를 드림(찬양은 게일어). 수요 기도회는 이중 언어(게일어, 영어)로 드림.

(8) Kinloch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랙세이에 위치. 담임목사: Rev D A MacDonald. 주일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목요기도회와 성찬식 예배는 영어로 드림.

(9) Knock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 가라보스트에 위치. 담임목사: Rev James Maciver. 10:30과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수요 기도회는 이중 언어(게일어, 영어)로 드림.

(10) Loch Free Church of Scotland:

르우보스트 호수가에 크로스보스트에 위치. 담임목사가 공석으로 임시 당회장이 예배 인도.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리고 오후 6시 예배를 영어로 드림. 수요일 7:30 기도회 모임은 영어와 게일어로, 토요일 7시 기도회 모임은 게일어로 진행.

(11) North Tolsa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노스 톨사에 위치. 담임목사: Rev R J Campbell. 주일 10:30과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12) North Uist, Grimsay & Berneray Free Church of Scotland:

노스 우이스트 섬의 카리니시(Carinish)에 위치. 담임목사: Rev Ewen Matheson.

(13) Pairc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그래비어에 위치. 담임목사: Rev Iain T Campbell. 주일 12시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14) Scalpay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칼라니시에 위치. 담임목사: 공석 중이므로 임시 당회장이 예배 인도. 주일 예배를 게일어로 드림.

(15) Shawbost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쉐우보스트에 위치. 담임목사: Rev Malcolm MacLeod. 주일 12시에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매월 첫째 주일 12시에만 게일어 예배.

(16) Stornoway Free Church of Scotland:

루이스 섬의 스토노웨이 케네스 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는 프란시스 가에 위치해 있음. 신학교 건물은 기도회 모임과 게일어 예배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 담임목사: Rev Iver Martin. 목요일 기도회를 게일어로 진행.

2. 게일어 예배 교회들의 특징

이상에서 열거한 게일어 예배를 드리는 52개 교회들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기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서지방(도서지역 포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sle of Lewis, Isle of Skye, South Uist, North Uist, Inverness[32] 일부 등 모두 북쪽 하일랜드와 서쪽 섬 지방에 위치한 다수(多數)의 교회들이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BC 500년부터 게일어를 사용하던 켈트족들의 본 고장으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게일어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곳이다.

[그림 2] 게일어 교회 분포 지역

(인터넷 google 이미지에서 인용)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스코틀랜드 국교회와 자유교회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로 주를 이루고 있음은 이 두 교단이 스코틀랜드 기독교의 양대 교단이며[33], 또한 매우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점이다. 스코틀랜드 국교회는 장로교단의 시작을 가능케 한 교단으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해 온 교단이며, 자유교회는 교회의 성직 임명권의 독립을 주장하며 국교회와 분열을 선포했던 교단으로 국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양상을 띤 교단이다. 자유교회는 예배의 양식[34]과 삶의 방식[35]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

32) Inverness(인버네스)는 하일랜드의 수도이며 중심도시이다. 하지만 게일어 사용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33) 2012년 현재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64.0%이며, 국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숫자는 전체 인구의 41.4%이다. (The Church of Scotland Year Book 2013-14).

34)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 대신 시편을 낭독하며, 피아노나 오르간 등 악기의 사용을 금해오다가 2010년 11월 20일 특별총회에서 개체 교회의 회중이 희망할 경우에 한하여 예배 시에 찬송을 부르거나 악기를 사용하여 반주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의함으로서

침에 대한 근접성을 강조하는 편에 속한다. 게일어 사용자들의 신앙관과 삶의 방식 역시 매우 보수적이어서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적인 언어와 신앙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국교회 보다는 자유교회가 더욱 보수적인 삶과 신앙관을 지닌 것을 알 수 있다. 즉, 국교회는 모두 약 1, 000개 교회 가운데 36개 교회(3.6%)만이 게일어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교회는 100개 교회 가운데 16(16%)개 교회가 게일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 가운데 국교회와 자유교회를 제외한 교단(침례교, 감리교, 복음주의, 루터교, 오순절 등)에 속한 교회들은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수가 매우 미미할 정도이다.

게일어가 스코틀랜드 최초의 언어로서 스코틀랜드인들의 마음속 깊이 내재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2014년도에 있을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한 국민투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진다. 게일어 예배는 이러한 점에서 건전한 보수적인 신앙심을 증진 시킬 뿐 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인들의 민족정신을 재확립 하는데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 된다.

하지만 게일어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게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목회자를 구하는 문제이다. 다수의 교회들이 게일어 목회자를 구하지 못하여 공석으로 남겨 놓은 상태일 정도이다. 게일어와 게일 전통 문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있지만, 게일어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은 전무하기 때문에 게일어 교역자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게일어를 구사 할 수

'100년 동안 시편 송을 읊던 교단'이라는 명칭을 벗게 되었다. (당시의 총회장이었던 Rev. MacDonald의 동의로 표결에 부친 결과 98대 84로 간신히 통과되었음.) (http://www.freechurch.org/images/audio/FC_Statement.pdf. 2013년 7월 30일 검색).

35) 전술 한 바대로, 주일에 차를 타거나 여행을 하거나, 쇼핑, 빨래, 설거지 등 일체의 일을 금하고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 늘어놓았던 빨래 감도 주일이 되기 전 토요일에 모두 거두어 들여야 한다. 게일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가장 많이 밀집된 루이스 섬에는 주일에 페리(ferry)의 정박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있는 교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게일어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또는 신학대학과 게일어 대학 간에 긴밀한 협력관계의 유지가 필요 할 것이다.

V. 결론

영어가 제1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게일어가 민족어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여 모든 국민이 사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게일어가 2005년부터 공용어로 인정을 받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게일어 부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교회와 자유교회에서도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은 게일어 부활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코틀랜드에서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52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잉글랜드의 런던과 저지대인 에든버러와 글라스고우에도 소수가 있긴 하지만, 주로 하일랜드의 북서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게일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밀집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에든버러와 글라스고우에 위치한 게일어 예배 교회들[36]은 모두 국교회에 속해 있는 반면에, 하일랜드의 수도인 인버네스에 있는 게일어 예배 교회[37]는 자유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국교회와 자유교회 모두 매우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교리를 고수하며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경건하며 엄숙한 예배 모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인은 소박하고, 검소하며, 근면하며, 절제력이 강

36) IV-1 참조: Greyfriars Tolbooth & Highland Kirk, St Columba's Church, Gardner Church of Scotland.

37) IV-1 참조: Free North Church of Scotland.

하고 보수적이며, 낙천적이며, 유머를 즐기며, 감성이 풍부하며, 이웃에 대하여 정이 많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별히 게일어를 사용하는 북부 하일랜드와 서부도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 사용 지역인 저지대 사람에 비하여 보다 순수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순수성과 보수성은 지역적 특성도 있겠으나 많은 부분은 토착 언어(vernacular)인 게일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지켜온 개혁주의 보수신앙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게일어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들은 스코틀랜드 개혁주의 장로교의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앙을 견지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차재국. (2012). 스코틀랜드의 언어와 문화의 정체성. *영미언어와 문화. 3*/1: 125-149.

Buchanan, D. (1999). *Gaelic-English English-Gaelic Dictionary*. Hippocrene Books, Inc.: New York.

Galbraith, D. (2013). *The Church of Scotland Year Book 2013-14*. St Andrew Press.

Glen, Carol, M. (2010). The Politics of Language Policy in Scotland. *The Annual of Language & Politics and Politics of Identity*, *Vol. IV*: 45-58.

Kloss, H. (1967). "Abstand languages and Ausbau languages." *Anthropological Linguistics 9*: 29-41.

Levy, P., & Ong, J. (2011). *Scotland*. Michelle Bisson: New York.

MacLean, F. (1998). *Scotland: A Concise History*. Thames and Hudson Inc.: New York.

McLeod, Wilson.(1998). Scotland's' Languages in Parliament. *Scottish Affairs* 24: 68-82

Millar, Robert McColl. (2006). 'Burying Alive': Unfocussed Governmental Language Policy and Scots. *Language Policy 5:* 63-86

Murdoch, Steve. (1996). *Language Politics in Scotland*. Aberdeen University Scots Leid Quorum: Aberdeen.

Smout, T. (1986). *A Century of the Scottish People 1830-1950*.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Tabraham, C. (2004). *History of Scotland*. Oyster Press, Anacortes: Washington.

Unger, Johann W. (2008). A Keek at Scots Lang Syne: A brief overview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cots language. *Vienna English Working*

Papers, *Vol. 17*/1: 99-117

Wilson, N. (2012). *Scotland's Highlands and Islands*. Lonely Planet Publications

<인터넷 검색>

http://www.churchofscotland.org.uk/home

http://www.freechurch.org/images/audio/FC_Statement.pdf

http://www.freechurch.org

http://www.freechurchcontinuing.org.

http://www.smo.uhi.ac.uk/en/cursaichean/cursaichean-air-astar/